

바이오 전주기 생태계 안착 비전 제시

남원시 바이오 산업연구원, 지원 기업 매출 목표 650억원·재정자립도 29% 등 지표 상향

남원시 바이오 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이 2026년 남원형 바이오 전주기 생태계 안착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해 △영호남 유일 화장품 시험검사·입상센터(남원바이오테스트센터) 준공 △지역기업 매출 500억 원 달성 △특허 8건 출원 △베트남 수출계약 260만 달러 등 굵직한 실적을 냈다.

연구원은 남원시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기관 성과와 연동되는 평가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기업 수요에 맞춘 소재 및 제형 개발, 기술지원 등 총 33건의 실적을 달성했다.

기술컨설팅을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지역 농가와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 역량의 지역사회 환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한미양행(배통나무·마가목 활용 수출용 제품), 에스비씨(오미자 활용 탈모 완화 제품) 등과 공동 R&D를 진행하며 실질적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과 연계한 바이오 작물 재배 기술 개발도 본격화했다.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결과, 목표 대비 2.3배에 달하는 8건의 특허(미국·베트남 국제출원 2건 포함)를 확보했다.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전략기업인 한미화장품을 남원첨단산업비즈니스터 영커기업으로 유치한 데 이어, 제이투케이바이오, HJK클라닉센터, 바이오제닉스 등 3개사와의 입주 협의를 완료해 올해(2026년) 추가 유치로 이어졌다. 신규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남원시 바이오 산업연구원이 2026년 남원형 바이오 전주기 생태계 안착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공간이 포함된 첨단산업비즈니스터는 현재 약 92%의 높은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총 190억 원을 투입한 영호남 유일의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인상 통합 플랫폼 남원바이오테스트센터(NBTC) 준공은 가장 핵심적인 성과다. 현재 306종 규모의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며, 본격 운영 시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 원인 분석부터 재시험 설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6년에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산업 성과를 거두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남원바이오테스트센터 본격 운영에 따라 지원 기업 매출 목표 650억 원, 특허 12건, 재정자립도 29%로 지표를 일제히 상향했다.

이 원장은 "가시적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탄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

라며, "특화 원료 발굴부터 지역 기업의 제조 및 생산, 시험·입상, 최종 사 업까지 남원 안에서 매끄럽게 순환하는 '바이오 전주기 생태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남들이 멈추는 지점에서 우리는 출발한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이라는 결과로 증명해 나갈 기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바이오산업은 남원의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탄탄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남원형 바이오산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 경제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경제우선·정책중심' 핵심기조

민주 양총모 남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더불어민주당 양총모 남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양총모 후보는 14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대위의 핵심기조는 '경제우선, 정책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삼일선대위원장으로 박원조 전 전북도의원, 고문에 이희배 전 국회의원, 장영달 우석대총장 등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정책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보단에는 청년 및 여성정책, 모노레일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인사들도 대거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후보는 "이번 선거는 후배선진과 비방을 앞세우는 소모적 공방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인구감소와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경쟁이여야 한다"라며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공약으로 발표한 경제정책, 교육과 인구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농업 문화 복지 분야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민이 존중받는 남원 열어갈 것"

박형규 남원시의원 후보, 기자회견 갖고 선언

남원시의원(바산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박형규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은 호구가 아니라 시민이 존중받는 남원을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25년 한 해, 시장 당선 후 바로바로 출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후배선진과 비방을 앞세우는 소모적 공방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인구감소와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경쟁이여야 한다"라며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공약으로 발표한 경제정책, 교육과 인구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농업 문화 복지 분야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자원순환 우수 읍·면·마을 평가 실시

임실군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률 제고 등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정책 실행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6년 자원순환 우수 읍·면·마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11월 중 실시되며, 관내 12개 읍·면과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읍·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여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침이다.

평가는 총 3개 분야 9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폐기물처리 역량' 분야에서는 △대청소와 날 운영 △방치폐기물 처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실적 등을 평가하며, '자원 재활용 확대' 분야에서는 △분리배출시설 설치 △폐건전지 및 종이팩 수거 △영농폐비닐 수거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청소행정 역량' 분야에서는 △재배정예산 조기 집행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등 폐기물 배출시설 관리 적정성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며, 업무추진 협조가 우수한 읍·면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읍·면 부문은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마을 부문은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장려 2개소를 각각 지급한다.

한편, 임실군은 시달한 평가계획 및 지표를 바탕으로 9월 중 읍·면의 우수마을을 추천을 받은 뒤 10월경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중 서면 및 현지 평가를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

순창군이 구립면 금평리 일원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구립면 금평·산내·안심 등 3개 마을의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 5월 실시계획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85억 3,000만 원이 투입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1일 처리용량 65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로 4.48km 정비 △150가구 배수설비 설치 등이다.

군은 올해 안에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7년 3

분기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전용 하수관로를 통해 처리장으로 유입돼 정화 처리 후 방류된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별 정화조에 의존해 생활하수를 처리해 왔으나, 노후화와 관리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주거 쾌적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인근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 생태계 보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

임실군은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농가와 예비창업자,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숭아·매실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 역량 강화 교육을 전개하며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임실 관내 복숭아·매실 생산 농가와 식품가공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공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연구소 식품개발연구팀 실습실에서 진행되며, 이론 교육과 제조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식품제조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교육생들이 직접 제품 제조 공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산균 발효 음료 제조, 젤리 음료 제조, 과실주·식초 제조, 저당 소스 및 드레싱 배합·제조 원리 등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어린이 대상 흡연 음주예방캐릭터 뮤지컬 공연

순창군은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14일 군민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캐릭터 뮤지컬 공연 '뽀뽀뽀 마을 VS 행복마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관람형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와 율동, 노래가 어우러진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